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범등(구창희)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8년 제170호

갑오년 효강 종령 법어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께 자비의 법등이 밝혀져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서원하며 또한 통일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가려는 자비와 보살행의 원력이 국론화합과 경제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기를 지심으로 비로자나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일체만물은 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어서, 하나도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깊은 진리는 만물은 원래부터 남남이 아니라 한 뿌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갑오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창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들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갑오년 통리원장 신년사



라는 인간고의 해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고에서의 해방의 길은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 환경 즉 국가의 경제, 정치적인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정치 활동은 국민의 현실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정치가 정법(正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불교의 중생 구제 이념과도 상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군주와 백성을 인격적으로 교화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며, '나'라는 개개인이 모여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울타리를 이룹니다. 법정스님의 "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이라는 말처럼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 여러분들이 불보살님의 가지호념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늘 건강하시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갑오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범등

갑오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호념으로 모든 불자님들과 교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사고(生死苦)

리핀 구호 기금으로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전 종단이 합심하여 모금 한 소중한 성금을 현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 후 인선 총무부장은 불교TV 회장 성우님을 예방하고, 효강 종령 예하의 안부를 전했다.

불교TV 구본일 사장은 "총지종 교도들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성금을 필

총무부장 인선정사는 "총지종 전 교도들의 정성을 모아 자연 재해의 고통 속에서 필리핀 국민들이 하루 속히 회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며 전 교도를 대표하여 성금의 의미를 전했다.

불교TV 구본일 사장은 "총지종 교도들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성금을 필

괴산수련원 건립불사의 원만 성취로 제2의 창종을 이루자

제41주년 창교절 기념법회 12월 24일 전국 서원당에서 봉행



▲ 제 41주년 창교절 총지사 기념 불사

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통리원장 범등정사의 집공으로 제41주년 창교절 기념 불사를 열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전국의 사원으로 전달된 유시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신 종조 원정대성사님과 선대 여러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림이다."며 종단의 기틀을 세우신 선대 스승들의 각고의 노력에 감사를 드렸으며 "지금 괴산수련원에서는 중원사 신축불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대성사님의 창종정신을 기리는 종조전과 종조사리탑을 건립하여 제2의 창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괴산수련원 불사의 원만성취와 새로운 종풍 확립을 서원하였다.

통리원장 범등정사는 창교절 및 허물 불공 회향일 설법에서 "남의 허물도 자신의 허물로 보고 참회 정진하면, 서로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한다."며 허물 불공에 동참하신 교도분들의 업장 소멸과 복덕증장을 서원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종단발전과 교도 화합에 기여한 서울.경인.김은숙 지회장, 부산.경남 신인록 지회장, 충청.전라 민순분 지회장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총지사 신정회 주최로 '웃놀이'가 교도 및 교무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경기 결과는 신도 팀이 5전 3선승제에서 3승을 내리 이겼다. 또한 전국의 사원에서도 창교절을 맞아 종단 발전의 새로운 서원을 다지고, 서로를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 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하십시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하십시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필리핀 태풍 하이엔 복구 성금 2,000만원 전달

불교TV를 통해 필리핀 현지로 전달 예정



▲ 성금을 불교TV 구본일 사장에게 전달하는 총무부장 인선정사

謹賀新年
총기 43년 · 불기 2558년

불교총지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범등

중앙총의회 의장	수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 성
총무부장	인 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우
재무부장	우 인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 성
교정부장	원 당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시 정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환수원

중앙총의회 의원	법장원	총지종보 및 홍보통신원
총지종 유지재단	밀교 연구소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 공부방 · 초췌어린이집
전당건설 위원회	(재) 사회복지재단	일원어린이집 포레스트7단지 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주) 이지스상조
		각 교구 신정회 일동

총기42년 불교총지종 인사발령

소속	불명	이름	발령사항	발령일자
성화사	지광 (智光)	김기흥 (金基興)	성화사 주교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 성화사 근무를 명함.	총기42. 12. 31, 총기43. 1. 1, 총기43. 1. 1.
성화사	수심정 (水心淨)	고춘철 (高春哲)	성화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3.1. 1
수인사	지공 (知空)	이국웅 (李國雄)	수인사 주교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	총기42. 12. 26, 총기43. 1. 1
수인사	지회심 (至悔心)	이필옥 (李畢玉)	수인사 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	총기42. 12. 26, 총기43. 1. 1.
단향사	경원 (鏡願)	최순일 (崔順一)	단향사 주교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 단향사 근무를 명함.	총기42. 12. 31, 총기43. 1. 1, 총기43.1. 1.
정각사	정인화 (正忍華)	권병연 (權柄蓮)	정각사 주교근무를 면함. 관음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관음사	정원심 (靜元心)	박미옥 (朴美玉)	관음사 주교근무를 면함. 운천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법황사	혜안정 (慧眼淨)	지영자 (池英子)	법황사 주교근무를 면함. 국광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국광사	안성 (安聖)	박인관 (朴仁寬)	국광사 주교근무를 면함. 수인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국광사	유가해 (瑜伽解)	이화순 (李花順)	국광사 근무를 면함. 수인사 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건화사	록경 (祿敬)	황보상민 (皇甫相敏)	건화사 주교근무를 면함. 정각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건화사	법수연 (法秀衍)	이희자 (李姬子)	건화사 근무를 면함. 정각사 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운천사	도현 (道玄)	박현수 (朴賢洙)	운천사 주교근무를 면함. 법황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운천사	자인행 (慈忍行)	조윤희 (趙允希)	운천사 근무를 면함. 법황사 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정각사	법상 (法尙)	장준호 (蔣峻昊)	정각사 근무를 면함. 건화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정각사	정원 (淨圓)	김보영 (金寶映)	정각사 근무를 면함. 건화사 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법성사	묘홍 (妙弘)	박성혜 (朴星慧)	법성사 주교근무를 면함. 정각사 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총지사	혜광 (慧光)	박종한 (朴鍾漢)	총지사 근무를 면함. 법성사 주교 근무를 명함.	총기42. 12. 26.
총지사		이대진	총지사 사무근무를 면함. 정각사 사무근무를 명함.	총기43. 1. 17
총지사		강세영	총지사 사무근무를 면함. 정각사 사무근무를 명함.	총기43. 1. 17

총지사 박소현 보살 장남 서정교군 서울대 의대 합격

총지사 박소현 보살의 아들 서정교군이 2014년 수능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대구 출신인 서정교 군은 수학경시대회 전국대회를 석권하는 등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 또한 어머니 박소현 보살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식을 위한 불공을 비로자나 부처님 전 올려, 모든 것이

진언염송의 신비로운 가지력으로 이룬 공덕이라 말했다. 교사출신인 박소현 보살과 치과의사인 서정재각자님은 앞으로도 더욱 옹양정진 할 것을 다시 한번 서원했다.

총지사=이인성 통신원

상월대조사 102주년 탄신법요 성료

구인사 광명전. 12월 30일 주요 종단 지도자 동참



▲ 상월대조사 102주년 탄신법요 성료

한국 천태종을 증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2주년 봉축법요식이 12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한 2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대조사님 탄신의 의미를 기리고 되새기는 것은 대조사님의 무진법문을 주경야선의 종풍으로 받들고 애국·생활·대중불교의 지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서원”이라 밝힌 후 “천태종 250만 불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조사님의 길을 따라 갈 것이며, 대조사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장엄한 법심으로 나누시어 증생계가 다하도록 법향을 드리워주시는, 대조사님의 은덕을 기리는 이 법석의 공덕이 무량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소구소원을 성취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심장섭 총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참되고 밝은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정화에 노력해온 천태종이 대조사님의 원용화합의 가르침을 더 크게 일궈서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보화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민족의 큰 혼란기를 거치면서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구인사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불법홍포를 이어갔다”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를 견인하며 종교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천태종의 주경야선 풍토가 앞으로도 단단한 정진력으로 승화되어 지혜와 자비가 위만한 세상을 구현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요식은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불교총지종 인선 총무부장, 조계종 사회부장 보화 스님, 태고종 초심원장 구산 스님, 총화종 남정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와 이현승 국회의원, 심장섭 문화체육관광부 총무실장, 신진성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동성 단양군수 등 정계 인사와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11/29	10,000
개천사	손식	12/9	50,000
개천사	무명씨	12/9	60,000
개천사	장진식	12/19	20,000
개천사	강순시	12/20	10,000
관성사	황성녀	11/28	10,000
관성사	이성은	12/10	10,000
관성사	인선	12/23	20,000
관음사	신막심	11/27	10,000
기로	혜암	11/28	100,000
기로	최상관	11/28	100,000
기로	해정	12/4	10,000
기로	해정	12/5	10,000
기로	대관	12/23	10,000
기로	대자행	12/23	10,000
기로	밀공정	12/23	10,000
기로	법수원	12/23	10,000
기로	법장화	12/23	10,000
기로	법지원	12/23	10,000

기로	불멸심	12/23	10,000
기로	사홍화	12/23	10,000
기로	상지화	12/23	10,000
기로	수증원	12/23	10,000
기로	총지화	12/23	10,000
단음사	법연지	12/12	10,000
단음사	전영희	12/23	10,000
밀인사	정정희	11/28	5,000
백월사	조영주	12/5	10,000
벽룡사	양정현	12/10	10,000
벽룡사	양지현	12/10	10,000
벽룡사	무명씨	12/10	10,000
벽룡사	무명씨	12/10	10,000
선립사	심지장	12/13	10,000
선립사	이순복	12/19	10,000
선립사	수정	12/24	20,000
선립사	정향식	12/24	10,000
수인사	김봉기	11/27	10,000
수인사	무명씨	11/29	10,000

승천사	원봉	12/16	10,000
승천사	지선행	12/16	10,000
시법사	선도원	12/23	10,000
실보사	조순애	11/26	60,000
실보사	조순애	12/24	60,000
실지사	이순명	12/19	50,000
우리사랑나눔	손경옥	12/21	7,291
일원어린이집	이지민	11/26	10,000
	서선숙	11/26	10,000
	하재희	11/26	30,000
	하미영	11/26	10,000
	최복란	11/27	10,000
	김지영	11/28	10,000
	구미자	12/2	10,000
	김지영	12/24	10,000
자석사	장재철	12/16	20,000
정각사	김문수	11/26	10,000

정각사	홍귀선	12/10	30,000
정각사	김문수	12/16	10,000
정심사	원정연	12/5	30,000
정심사	원정연	12/5	30,000
정심사	원정연	12/24	30,000
지인사	승효제	12/16	10,000
지인사	지성	12/16	10,000
총지사	법등	12/4	30,000
총지사	법등	12/5	30,000
화음사	강동화	11/27	10,000
화음사	강순란	12/2	5,000
흥국사	지정	12/16	20,000
	장복순	12/17	20,000
	김갑선	12/19	10,000
	일원어린이집	12/20	104,900
	오순자	12/24	50,000

11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비로자나 법계궁(法界宮) 중원사 신축 상량 불공 봉행

12월 18일 괴산 수련원 중원사 신축 현장에서



▲ 중원사 신축 상량 불공

불교총지종의 오랜 염원인 괴산수련원 중원사(주교 정정심 기로스승) 상량 불공이 12월 18일 봉행되었다.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범등정사,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 재무부장 우인정사, 만보사 승원 정사, 기로스승 총지화 스승을 비롯한 대전 충청교구 스승들이 동참했다.

총지종 정통의례에 따라 봉행된 상량 불공에서 총리원장 범등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불교 총지종의 오랜 염원인 괴산 수련원 중원사는 모든 교도들과 스승들이 수행에만 전념 할 수 있는 도량으로 헌공될것을 서원합니다.”며 무사히 공사가 회향되기를 서원 했다.

현재 괴산 수련원은 50평 규모의 서원당과, 스승 사택, 숙소동, 공양간이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 경남 교구 교화의 어머니 정각원 대전수 제30주기 추선법회 봉행



▲故 정각원대전수

12월 28일 부산 정각사에서서는 부산.경남교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교화의 문을 연 ‘정각원’ 대전수의 제30주기 추선법회가 봉행되었다.

이날 법회는 부산. 경남 교구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동참, 스승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정각원’ 대전수는 총기 원년에 정각사 주교의 소임을 맡아 교화를 시작하셨다. 총기9년에는 총리원 교정부장을 맡아 총리원 교정

업무를 기틀을 마련하고, 총기10년 부산교구장에 임명되었다. 정각원 대전수는 법신 비로바나 부처님의 진언 밀법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셨다.

스승님의 교화를 받고 수행을 이어나가는 교도와 스승들은 총지종 교화의 불꽃이 다시 한번 들불처럼 피어나가기를 서원했다.

정각사= 이상록 통신원

실지사 신축 불사 상량불공 봉행

12월 16일 서울·경인 교구 스승 및 교도 동참



▲ 실지사 신축 불사 상량불공

서울·경인 교구 스승 및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상량법회는 실지사 주교 범우정사의 집공으로 열렸다.

총지종 전통 의례에 따라 진행된 이날 불공은 대들보에 상량문을 올리고, 불보살들의 가지를 받아 무사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서원했다.

실지사 주교 범우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실지사 신축을 위해 애써주신 스승님들과 교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지사가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무사히 헌공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불공정진 하겠습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실지사는 연건평 195평의 2층 건물로 강북 교화의 중심으로 거듭 날 것이다.

강북 교화의 중심지인 서울. 경인교구 실지사 신축 불사 상량불공이 12월 16일 신축현장에서 봉행되었다.

실지사=김종열 기자

제석사 득락전 종조진영 및 소불 봉안가지불사



▲ 제석사 득락전 종조진영

대구 제석사(주교 행원심 전수) 득락전 종조진영 및 소불봉안가지 불사가 12월 11일 효강 중령 예하, 대구.경북 교구

스승,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교구장 안성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봉안가지불사 의례에 따른 이번 불사는 개회사, 훈향정공, 봉안진언, 보소정진언, 소청문낭독, 잡회, 오대서원, 천수경(신묘장구대다라니), 유가삼밀, 서원사향, 축원법문낭독, 발원문봉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집공 스승인 안성정사는 소청문 낭독에서 “상을 모시는 것은 위없는 복원이 되고, 기도를 하는 이는 무량한 공덕을 이룬다 하였으니,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왕림하시어 굽어 보살피 주시옵고, 일체 제존은 도량을 옹호하여 일체지를 증득케 하옵소서.”라며 청을 올렸다.

제석사 주교 행원심 전수는 발원문 봉독을 통해 “오늘 ‘득락전 봉안가지 불사’에서 일체만물이 대성취의 연꽃향을 맡게 하시고, 무명생애가 제법실상의 일체지를 증득케 하옵소서.”고 부처님 전 간절히 발원하였다.

총지종 마니합창단 불교성악곡 “부모은중경”출연 세계적인 불교음악 연주회에 동참



▲ 부모은중경에 출연한 '마니합창단'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사장 초격스님)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불교 성악곡으로 평가받는 ‘박범훈의 효 칸타타 부모은중송’에 불교총지종 마니합창단(단장 손경옥)이 출연 동참했다.

제20회 정기연주회 및 한국불교 미주 전법 50주년 기념음악회로 기획된 이번 행사 12월4일 오후7시30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되었다.

부모은중송은 1996년 광덕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시에 불교 음악가인 박범훈(전 중앙대 총장)이 곡을 붙인 것이다.

이날 연주회는 대한불교청소년

소녀합창단과 동문, 불교총지종 마니합창단 및 서울·경기남부불교합창단 연합회, 김경미(이화여대), 한아름(중앙대), 한진수(중앙대) 등 대학생 국악인 등이 함께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황학현 대한불교청소년소녀합창단장은 “부모은중경의 진리를 어린이, 청소년들과 여성합창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대중의 오감을 맑게 씻어 주고 효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연주회의 의의를 전했다.

총지사=박정희 통신원

2013년 부산불교합창제 성황리 봉행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원력상 수상



▲ 경연중인 '만다라합창단'

부산 불교 합창단 연합회 (회장 김윤순)은 12월 12일 목요일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2013년 부산불교합창제」를 봉행했다.

총지종 부산 정각사 만다라합창단(단장 김윤경)을 비롯한, 범어사, 삼광사, 미룡사 등 부산 지역 주요 사찰 합창단 13개 팀과 부산불교연합합창단이 찬조출연 하였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김윤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합창은 소수의 독선과 아집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낮추고 화합하고 제

역할을 해야지만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있습니다.”며 하심(下心)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올리는 합창단들의 노고에 감사했다.

정각사 만다라합창단(단장 김윤경)은 박윤규 선생의 지휘와 김옥희 선생의 반주로 원은희 작사, 강주현 작곡 ‘경전한 구절’과 아바(ABBA)의 ‘댄싱퀸’을 울돌과 함께 선보여 1,000여 관객의 갈채를 받았다.

부산 시민회관=김종열 기자

불교총지종 승직 후보 모집 공고



▲ 불교총지종 승단 대만 불교연수

불교총지종이 스승을 모집합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입교개종하신 정통 밀교 총지종에서 교화를 담당하실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진언 염송 정진으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은 소속 사원 주교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승직에는 은퇴하신 교도에 대한 명예 스승도 모집합니다.)

- 마감기간: 총기 43년 1월 16일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불교의 선정 25

사념처 수행

법념처(2)-관오온(觀五蘊)

탐욕과 집착의 대상인 오취온을 관한다

법념처의 두 번째 방법은 관오온(觀五蘊)이다. 오온은 오취온(五取蘊)이라고도 하는데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탐취와 집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온(蘊)'이라는 말은 범어로 skandha라고 하며 취집(聚集) 혹은 적집(積集)의 의미가 있다. 즉 다발로 모인다, 혹은 쌓인다는 의미이다. 오취온이라고 하면 오온이 집착의 조건이고 번뇌가 발생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부처님의 설법에 여러 가지 법수(法數)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삼법인, 사성제, 오온, 십이처, 십팔계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알아 듣는 능력에 맞춰 진리와 세간의 여러 가지 현상을 알아듣기 쉽게 다양하게 나누어 설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오온의 설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십이처와 십팔계 등의 설법을 좋아한다. 부처님께서 오온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특히 '오취온'이라고 하신 것도 중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세간 일체라는 것은 오온을 빼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다. 그럼 오온만 말씀하시게 될 것인데 왜 오취온이라고 하셨을까?

'취(取)'가 가르키는 것은 갈애(渴愛)와 욕망이다.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욕심을 탐애(貪愛)라고 하고 강렬한 것을 갈애, 혹은 집착(執取)이라고 한다. 갈애는 욕심이 지나쳐서 마치 물고기가 물에 나와 물이 없어 헐떡거리는 것과 같다고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집착은 단단히 움켜쥔다는 의미가 있는데 갈애의 대상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것은 손으로 무엇을 움켜잡는 다기보다 마음속으로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갈애의 대상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다.

'취'에는 욕취(欲取)와 견취(見取)의 두 가지가 있다. 욕취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좋거나 아름답다고 느껴 그것을 탐내고 가지려는 것을 말한다. 견취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사견으로서 그 대상이 항상 존재하며 실체를 가진 것으로 잘못 알고 집착하는 것이다.

유정중생들은 모두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온은 육체를 포함한 물질적인 색과 수·상·행·식의 심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온은 색법과 심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정중생의 모든 것은 색법과 심법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오온이 일체라고 하신 것이다. '취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법과 심법의 범주에 드는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탐욕과 집착의 대상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잡아함경》에는 오온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즉, 색은

은 물거품과 같아서 비어 있으며 실체가 없는 것으로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수온은 물결과 같아서 순식간에 없어지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무상한 것으로 보았다. 상온은 신기루와 같아서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행온은 파초의 대공이에 비유하여 안이 비었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식온은 많은 심소의 조합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마치 마술사가 빗자루로 말을 만들고 풀이나 나무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같이 실체가 없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진실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 오온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며 실체가 없으며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

사념처 수행에서는 항상 오온의 관찰에 대해 언급하는데 색온은 신념처의 수행대상이 되고 수온은 수념처, 식온은 심

념처의 수행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실제의 수행에서는 심과 법은 신체와 느낌이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법을 떠나서는 관찰심이란 것도 있을 수 없으므로 오온은 심념처의 수행대상이면서 동시에 법념처의 수행 대상이기도 하다.

오온의 관찰

*색온

색은 팔리어로 rupa라고 하는데 rupatti라는 말의 어근이다. rupatti에는 '부서진다', '가로 막는다' '견고하지 못한 것' 등의 의미가 있으며 rupa에는 '색깔이나 형태가 있는 것'의 뜻이 있다. 즉 색은 일정한 공간을 점하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와 함께 하지 못하며[이것을 질애(質礙)라고도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윽고 소멸하는 성질이 있다. 한 마디로 인식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인 것을 색 혹은 rupa라고 한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28종의 색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색법은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사대(四大)와 이십사소조색(二十四所造色)인데 사대는 지수화풍의 사대원소를 말하며 소조색이라는 것은 사대원소로 인하여 혹은 의지하여 나타나는 색법이다. 사대원소가 예를 들어 사대가 대지라면 소조색은 대지에 의지하여 생기는 수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대에 의지한 소조색의 출현이 곧 우리가 보는 일체의 사물이다.

수행자는 색의 생기(生起)와 출현을 관찰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육체를 볼 때 그것이 물질이며 어떠한 성질의 물질인가를 분명히 알아차려 '이것이 색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보고 그것이 일어나고 멸하는 과정을 잘 통찰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호흡은 우리가 색신이 있기 때문이며 색신은 우리가 과거에 누적하여 지은 업이 만든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호흡의 일어나고 멸함을 끊임없이 관찰함으로써 색법은 연속부단의 과정이며 생명이 무상하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색법관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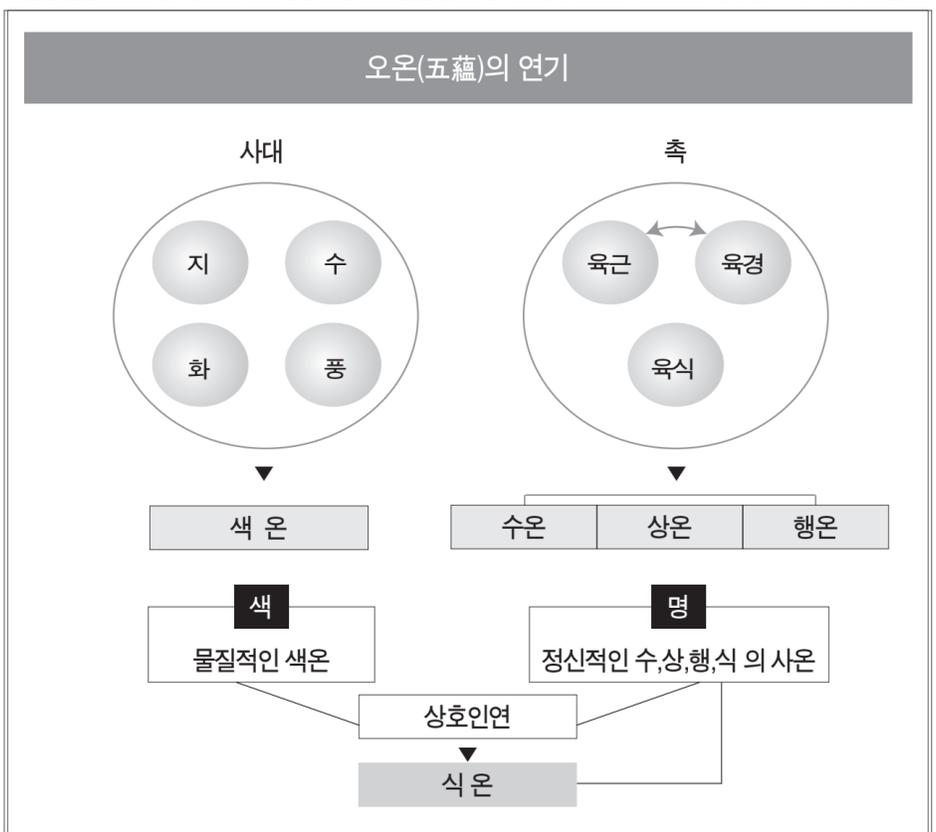
*수온(受蘊)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하게되면 즐거움, 괴로움,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고통이 느껴질 때 고통 그 자체는 신체적인 것이지만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다. 이때에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느낌이 수온이다. 우리가 오관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느낌이나 나쁜 느낌이나 처음에는 모두 해당 기관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접촉이 있지만 그 접촉에 대한 심리적인 것이 우리의 괴로움과 즐거움 등을 만든다.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같은 동성 끼리 알몸으로 부딪혔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만약 이성끼리 알몸으로 부딪혔다면 그 느낌은 아무래도 다를 것이다. 같은 피부의 접촉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파악했는가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진다.

수온의 관찰은 육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전 과정을 세밀히 관찰하여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리상태에 따라 변화하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수의 무상을 깨닫기 위한 것이 수온 관찰의 목적이다.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화령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성사
주 교 :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밀인사
주 교 :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법천사
주 교 : 정사 법 경
전수 덕 현
☎ 031-751-8685

벽룡사
주 교 : 정사 법 일
전수 자 행정
☎ 02-889-0211

총지사
주 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552-1080

실지사
주 교 :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2-983-1492

정심사
주 교 : 정사 화 령
☎ 02-491-6888

지인사
주 교 :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32-528-2742

시법사
기초승: 선도원
☎ 032-522-7684

갑오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수 현
중앙총의회 의장

어느 뇌 전문 과학자가 연구한 결과 인간은 아홉 가지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가지 나쁜 기억이 들어오는 순간 앞의 아홉 가지는 잃어버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기억을 없애고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는 방법으로 참선과 염불이 최고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으며

2013년 계사년은 가고 2014년 갑오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했던 분과 좋지 못한 일들로 힘든 날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새해에는 교도님들의 마음에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서울여대 '사랑의 염서' 공모전 대상작 한편을 소개 할까 합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걸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 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 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대생이 어머니의 암 판정을 받고 난 후 심정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2013년 한해의 좋았던 기억들 만 남기고, 안 좋은 기억은 저무는 해와 함께 떠나보내세요.

2014년 새해는 새로운 꿈과 희망, 행복을 가득 품으시고 합차게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음마니반메흠

나를 다스리는 마음



안 성
대구. 경북 교구장

다스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땅에 넘어진 자는 땅을 쥐고 일어선다 하였습니까." 고통과 괴로운 마음 밖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말의 해 갑오년에는 모든 것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말과 같이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으며 분별이 없이 광대 원만한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넓고 크고 둥글고 가득 찬 마음이어야 합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말입니다.

갑오년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교도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고 기쁨과 희망 가운데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범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정례 올립니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굳건한 신심과 금강 같은 불퇴전의 용맹으로 이를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역경은 어려움을 이겨 내는 것입니다. 이겨 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역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절대 외경(外境)에 있지 아니하며 오로지 내심(內心)에서 나를

불공과 정진기도는 소원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닦는 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요 마니보라 할 수 있습니다.

범구경에 이르기를 "깊은 못은 맑고도 고요하여 물결에도 흐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물질적인 성취보다는 비물질적인 마음의 풍요와 지혜를 성취하시기를 서원합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시고 부처님의 가지력이여 찬탄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음마니반메흠.



범 우
서울 경인 교구장

성장의 원동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장은 내적 성숙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철저한 자기 관리에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계율(戒律)에서 찾고 있습니다. 청정지계(淸淨持戒)만이 우리를 성숙시켜주고 자기 발전을 가져오게 합니다. 크게는 그것이 일체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큰 도(道)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인욕으로 투구를 삼고, 정진으로 갑옷을 삼으며, 계행(戒行)으로 큰 말을 삼고, 선정으로 활을 삼으며, 지혜로써 화살을 삼아 밖으로는마군을 쳐부수고 안으로는 번뇌의 도적을 멸하시니 이 이름이 부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계행을 큰 말로 삼으라 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말의 해로서 '계행'을 철저히 지키는 '지계(持戒)의 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계(持戒)에서 업장소멸, 소원성취, 자기 발전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처님전에 서원올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에 소원성취하시고 수승한 불법(佛法)의 은덕(恩德)을 입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음마니반메흠.

지계로 한 해를 열자

갑오년 새해를 맞이 하여 모든 불자와 총지종의 교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새해는 갑오년으로 말의 해입니다. 말은 날쌔고 용감하며 의기 양양하여 진취성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말(馬)과 같이 생활에서 진취적이고 믿음과 불공에서도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써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희망에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희망을 먹고사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활력 넘치는 갑오년 새해가 되시기를



시 정
부산 경남 교구장

올해는 갑오년으로 말의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말의 기운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망 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말은 사람과 함께 하는 가족

중에 으뜸으로 자리를 매겼습니다. 평소에는 마차를 끌고 전쟁에서는 선두에서 적들을 물리치는 소중한 동물입니다.

말은 사람들의 운송 수단 뿐 아니라 우리 밀교에서는 '마두관음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말의 끝없는 질주 본능으로 불공 정진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올 한해는 더 없는 정진으로 서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아끼지 않는 말의 인정으로 많은 이에게 보시를 베푸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칠 줄 모르는 말의 기운으로 정진하시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를 다시한번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정진과 화합으로 새해를



환수원
충청 전라 교구장

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올 한해를 보내야겠습니다. 또한 모든 스승님들이 건강하고 멋진 수행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총지종 스승님들과 교도님들의 일체 가정제대, 소구여의, 영 일체인 경애하고 부국강병 하기를 다시한번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음마니반메흠.

새해 갑오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새롭게 정진하고 화합적인 마음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위로는 종령 예하의 범문과 통리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나은 교화의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교도들이 바라는 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올해는 푸는 말이지만 청색 말(靑馬)의 해입니다. 새롭게 정진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교화에 이 정성을 다하고, 염승으로 더 다지는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이고, 너와 나라는 별개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교회라는 사명을 수행에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각사

주 교: 정사 룩 경
전수 범수연
묘 흥
☎ 051-552-7901

관음사

주 교: 전수 정인화
☎ 051-896-1578

단향사

기토스승: 경 원
☎ 055-644-5375

덕화사

주 교: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밀행사

주 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법성사

주 교: 정사 혜 광
☎ 051-468-7164

삼밀사

주 교: 정사 서 령
전수 혜원정
☎ 051-416-9835

성화사

주 교: 전수 수심정
기토스승 지 광
☎ 051-254-5134

실보사

주 교: 정사 덕 광
전수 보 현
☎ 052-244-7760

운천사

주 교: 전수 정원심
☎ 055-223-2021

일상사

기토스승: 수 행 월
☎ 055-352-8132

자석사

주 교: 전수 법상인
☎ 051-752-1892

화음사

주 교: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갑오년신년법어

“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갑오년 새 아침에 진리의 법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의 법입니까?

일출동산대지명(日出東山大地明)이라.
새해의 장엄한 빛이 온 지구촌을 밝게
비추는도다.

황금빛의 상서로운 기운이 마을마다 감도니
화합의 목소리 집집마다 들리겠습니까.

나무가 꽃에 집착하면 열매를 맺기 어렵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만 비로소 더 큰 바다에 들
수 있습니다.

과도처럼 밀려오는 미래 앞에, 누적된 과거의
폐습, 반목과 갈등은 지난 해에 잊혀 보내고
국가와 지구촌의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염원합시다.

새 아침, 새 마당에 다 함께 나섭시다.
각자의 자기의 분을 따라 수행인은 수도에
전념하고

정치인은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헌신하며
농부는 생산에, 근로자는 일터에서, 학생은
배움에 매진할 때 태평가 울리는 일등국가
일등국민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참나 가운데 큰 지혜가 있고 참나 가운데 큰
복과 큰 덕이 갖추어져 있으니,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립니다.

불기 2558(2014)년 갑오년 새해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천지와 나는 한뿌리입니다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하고 짧기도 하다'란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평등한 봄빛에도 길고 짧은 꽃가지가
생겨나듯이 온갖 번뇌에 스스로 묶여 괴로움에 빠
져들게 됩니다.

천만 불자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밖에서 얻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지혜와 덕성을
고루 갖춘 자기의 본래 모습이 있음을 자각하고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요,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번뇌와 망상이 곧 반야(般若)와 열반(涅槃)이며
봄빛 아래 길고 짧은의 차별성 또한 그대로
법신(法身)의 작용이요, 응화(應化)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음 그대로를 옳게 보았을 때
지옥과 극락이 따로 없고 생사와 해탈이 두 말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불기 2558년 갑오년 새해 아침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갑오년 새해가 밝으니 곳곳에 희망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눈 덮인 산에 이는 활연한 바람과
남월(臘月)의 모진 추위는 아직 결기를 부리지만
금풍에 씻기던 암자의 매화가지는 벌써 봄빛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옛 조사 스님의 말씀에 '춘색무고하 화지자장단
(春色無高下 花枝自長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봄빛은 높고 낮은
것이 없이 두루 비추건만, 꽃가지는 스스로 길기도

참회로 비우고 발원으로 맞으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大慈大悲恒相續(대자대비항상속)하고
大喜大捨無間斷(대희대사무간단)하며
爲有緣者導妙法(유유연자도묘법)하여
晝夜修心常精進(주야수심상정진)하라.

욕망을 좇아 업이 된 세월, 참회로 비우고
인간 몸 받은 귀한 인연 기뻐하며 원을 세우라.
꿈같은 세월에 속지 말고
명명백백 분명한 이 순간을 영원으로 살려라.

새사람이 되어 새해를 맞는 이들이여,
새아침의 기쁨 함께 나누니
누리에 복이 가득하여라.

걱정 근심 번뇌덩이 본래 있었더냐.
언제나 밝고 깨끗한 본성의 빛을 바로 보아라.

갑오년(불기 2558년) 새해 새아침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김도용

자주와 화해의 심전心田을 가꾸자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천지天地의 운
행이 다시 돌아
갑오년의 새아
침이 밝았습니
다.
새해의 대일大
日 광명이 산하
대지를 감싸서
법계의 중생들
이 안락安樂의
새해를

나라의 지도자가 함께 정법正法에 귀 기울여야
보수진보의 두 바퀴가 과열음破裂音을 내지 않고
사회의 못 계층은 상보相補의 터전을 마련하여
국론 통일과 국정國政 안정의 두 기둥이
굳건히 서서 복지사회가 자리를 잡습니다.
과학문명의 혜택으로 미증유의 풍요를 누리며
심성心性을 정화淨化하는 공부工夫를 더불어 해야
물심物心이 이원전문二元專門의 조화를 이루어서
개아個我的 이기심에 전도顛倒되는 세류를 돌리고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사회에서 화평和平을 누릴 수 있습
니다.

가꾸어가기를 서원합니다.

심인을 밝혀 정정심을 터득하면
말법시대末法時代의 중생심을 다스리고
명문이양名聞利養의 집착을 벗어나서
과아彼我的 차별이 화합으로 승화昇華하는
수행과 교화의 수승殊勝한 수행공동체가 열립니다.

자주와 화해가 대중의 심전心田에서 생기를 얻고
방방곡곡에서 새 희망의 기운이 넘쳐흐르며
너와 내가 저마다 소질과 능력을 찾아 내어
소담한 웃음 넘치는 행복의 삶을 빚어 가는
따뜻하고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갑오년 새해 원단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성초

불교총지종 교도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 상담전화
02.967.2228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

제5회 충지정보 전국 통신원 워크샵

화합과 소통의 메신저로 더 힘찬 한해를

제5회 충지정보 전국 통신원 워크샵/ 12월 19일- 20일 부산 정각사, 기장 해동용궁사 일원

제5회 충지정보 전국 통신원 워크샵이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정각사, 기장 해동용궁사 일원에서 열렸다. 눈이 내리는 곳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20여명의 통신원들이 정각사로 모여들었다.

현익채 법사의 부산 불교 역사에 관한 특강



▲ 워크샵 개최법회

정각사 주교 정인화 전수의 집공으로 봉행된 입제식은 충지종 교화발전과 종교통신원 워크샵 원만을 서원하며 비로자나 부처님께 불공을 올렸다.

이어 합창단 연습실로 자리를 옮긴 통신원들은 잠시 다과를 나누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잠시 후 오늘의 특강을 위해 도착하신 현익채 법사(전 금정중학교 교장, 교법사)를 연단으로 모시고 특강을 시작했다.

부산불교의 역사는 불교 청년들의 활동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이다. 1949년 신창동 대각사에서 학생법회가 열성적으로 열렸다. 1965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부가



▲ 특강하는 현익채 법사

설립되고 이듬해 부산불교청년회가 설립된다. 이어서 196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 많은 단체들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했다.

특히 충지종 정각사는 1977년 10월 15일 자성학교 어린이회를 부산에서 두 번째로 설립해 어린이 포교의 선구에 섰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찰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많은 단체들의 활동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었다.

현익채 법사는 지금의 불교는 시대의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좁은 근시안을 버리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충지정보

이어 충지정보 김종열 기자의 총기42년 종교 활동 및 편집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김종열 기자는 지난 3,4회 통신원 워크샵을 통해 발간한 사진설명부분과 통신원 기명 기사부분은 총기42년 1월호부터 기사에 반영되었고, 종교통신원 연 2회 워크숍은 예정된 날짜에 진행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내년도에는 보다 밀고적인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신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통신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신행 수기는 연간 3-4회는 반드시 게재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종보 제작 기준일을 매월 29일로 하고 각 사원에는 1-2일에는 배포되도록 결의했다. 이는 인쇄소, 배송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처리 하기로 했다.

약 1시간의 보고와 토론을 끝내고 정각사 인근 한정식점에서 저녁 공양을 한 후 숙소인 동래 온천지구로 향했다.



▲ 용두산 공원 기념촬영

한밤의 부산 관불

숙소인 천일온천호텔에 여장을 풀고 통신원들은 오랜 만에 부산을 찾은 감흥으로 광안대교와 용두산 관광을 제안했다. 마치 수학여행을 온 소녀로 다시 돌아간 모습이였다.

잠시 여장을 풀고 다시 모인 통신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의 야경 속으로 달려갔다. 해운대 센텀시티를 거쳐 광안대교를 가로지르고 용두산 공원에 도착해 기념 촬영을 했다.

편집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인성 회장이 "추운 날씨에도 먼 곳까지 찾아주시는 통신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 해도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통리원 집행부와 전국의 스승 및 교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통신원들과 간식도 함께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한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을 날려보냈다.



▲ 묘관음사 취재 실습 현장

해동용궁사, 묘관음사 취재 실습

못 다한 이야기를 밤새 꽃 피운 통신원들은 시원한 제철 해장국으로 아침 공양을 마치고,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관광 사찰 해동 용궁사를 찾았다. 기장군 사량리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사찰은 입구에서부터 12지신상이 신도들과 관광객을 맞고 있다.

두 번째 취재 실습지로 찾은 곳은 기장에서 고리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일광해수욕장 뒤편으로 철길이나오고, 작은 숲이 있다. 이곳에 '묘관음사'가 자리했다. 조계종의 근, 현대 선승들은 모두가 한 번은 다녀 갔다는 유명한 선방이다. 향곡 스님, 성철 스님 그리고 지금의 조계종 종정인신 진제 스님도 이곳 선방을 거쳐 간 눈 푸른 남자였다.

모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장 해변 바닷가에서 점심 공양을 하고 서로 아쉬워 커피 한 잔 하기 위해 전망 좋은 커피하우스에 다시 앉았다. 어제 서원한 새해 통신원 활동을 다시 마음으로 새기고, 각자의 사원에서 통신원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참석 하신 분

- 스승님 = 정인화 전수, 법상 정사, 법선 정사, 정원 전수
편집위원 = 이인성 회장
통신원 = 이연숙, 김옥인, 이형자, 윤혜신, 김경숙, 김경인, 오인숙, 고지현, 한경림, 김정애, 한미옥, 김윤경, 한미옥 (무순)
진행 = 장동욱 과장, 조정아 교무, 김종열 기자.



▲ 일광해수욕장에서 새해를 다짐하며 점프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충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2014년 1월호 신년특집

사종법(四種法)으로 일체 서원을 성취하고 일체 재난을 소멸하자!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1. 사종법(四種法)

사종법이란 밀교의 호마법을 말하는 것으로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재난을 소멸하는 수행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식재법(息災法), 증익법(增益法), 경애법(敬愛法), 항복법(降伏法)을 일러 사종법이라 한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사종호마법(四種護摩法), 사종성취법(四種成就法)이라 한다. 여기에 구소법(鉤召法)을 포함시켜서 오종수법(五種修法)이라 한다. 이 중에서 경애법은 증익법에 포함되고, 구소법은 경애법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식재법과 증익법, 항복법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호마법은 화로(火爐)에 불을 피워서 공양물을 대워 본존(本尊)에 공양올리며 수행자가 마(魔)를 물리치고 소원을 비는 밀교의 수행법이다.

식재법은 산스크리트어로 santika(선자가扇底迦)로 재난소멸의 호마법이다. 이를 적재법(寂災法), 제재법(除災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증익법은 산스크리트어로 pustika(포슬정가佈瑟微迦)라 하는데, 요익(饒益)과 소원성취의 호마법이다. 이를 증장법(增長法), 증영법(增榮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애법은 산스크리트어로 vasikarana(벌유가라나伐迦羅羅拏)라 하는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화합을 기원하는 호마법이다. 이를 애경법(愛經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항복법은 산스크리트어로 abhicaruka(아비차로가阿毘遮羅迦)라 하는데, 자신의 모든 번뇌망상과 악심(惡心)을 없애거나 원수나 원적(怨敵)을 누르기를 기원하는 호마법이다. 이를 조복법(調伏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구소법(鉤召法)은 산스크리트어로 akarsani(아갈사니阿渴沙尼)라 하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호마법이다. 이를 섭소법(攝召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 총지종에서는 이 사종법의 의거하여 종자관(種子觀)을 행하고 사종법의 준제진언을 외우며 국가와 종단, 일체중생과 사회, 각 가정과 개인을 위한 서원염송정진 발원을 하고 있다. 매일 염송하는 진언행자는 염송을 할 때마다 사종법(四種法)의 종자관(種子觀)을 행하는 것이 좋다.

2. 사종법(四種法)의 종자관(種子觀)

사종법은 첫째로 사종법의 종자를 관하는 '사종종자관(四種種子觀)'이 있고, 둘째 사종법의 진언을 외우는 '사종진언염송(四種眞言念誦)'이 있다.

사종종자관(四種種子觀)은 네 가지의 사종법에 의한 종자를 관하는 것인데, 식재법, 증익법, 경애법, 항복법의 진언종자를 관하는 것이다. 식재법의 종자는 '바'자이고, 증익법의 종자는 '아'자이며, 경애법의 종자는 '하'자이다. 이 종자를 일주씩씩 관한다. 염송을 할때 '람'자를 관한 후에 매주마다 각각의 종자를 관한다. 항복법(降伏法)은 종단에서 사용을 유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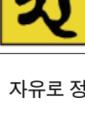
매월 첫째주(월초불공기간)에는 식재법의 종자 '바'자를 관한다. 방법은 '람'자를 관(觀)한 후, 백색 원단(圓壇) 안에 '바'자가 있다고 관한다. '바'자를 관하면서 일체재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발원한다. 종자관을 마친후에 염주를 쥐고 진언염송을 한다.

월초를 마친 그 다음주(둘째주)와 넷째주에는 증익법의 종자 '아'자를 관한다. 방법은 '람'자를 관(觀)한 후, 황색 방단(方壇) 안에 '아'자가 있다고 관한다. '아'자를 관하면서 일체서원의 성취를 발원한다.

종자관(種子觀)을 행하고 사종법의 준제진언을 외우며 국가와 종단, 일체중생과 사회, 각 가정과 개인을 위한 서원염송정진 발원을 하고 있다

셋째주에는 경애법의 종자 '하'자를 관한다. 방법은 '람'자를 관(觀)한 후, 적색 반월단(半月壇) 안에 '하'자가 있다고 관한다. '하'자를 관하면서 일체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서로 공경하고 화합되기를 발원한다.

다섯째주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자유로 택하여 행한다. 이 사종법의 종자관은 개인서원과 무관하다. 개인서원은 기간과 상관없이 종자관(種子觀)만을 해당 기간에 관한다.

기 간	종 자	사 종 법	방 법
매월 첫째주 [식재] (월초불공기간)	 바	식재법의 종자관	개인염송시 '람'자를 관한후에 '바'를 관한다.
매월 둘째주 [증익]	 아	증익법의 종자관	'람'자를 관한후에 '아'를 관한다.
매월 셋째주 [경애]	 하	경애법의 종자관	'람'자를 관한후에 '하'를 관한다.
매월 넷째주 [증익]	 아	증익법의 종자관	'람'자를 관한후에 '아'를 관한다.
매월 다섯째주[자유]	자유로 정함	자유로 정함	자유로 정함

3. 사종법(四種法)의 진언염송(眞言念誦)

두 번째의 사종법으로는 사종법의 진언을 외우는 '사종진언염송(四種眞言念誦)'이 있다. 이것이 사종법의 준제진언염송법(准提眞言念誦法)이다. 우리가 흔히 염송할 때 외우는 '옴 자레 주레 준제 ○○생 ○○○ 제재난 사바하' 등의 준제진언이다.

준제진언은 '준제관음보살의 진언'을 말하는데, 이를 줄여서 '준제진언'이라 한다. 준제보살은 '청정성'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로서 육관음보살(六觀音菩薩) 가운데 한 분이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의 '준디'를 소리나는대로 옮긴 말이 '준제'이며, 뜻은 '청정'을 나타낸다. 청정성을 나타내는 관세음보살이므로 '준제관음보살'이다. '청정'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청정한' 준제보살을 가리켜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불모(佛母)]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준제진언을

'불모준제다라니(佛母准提陀羅尼)'라고 한다.

총지종은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훴'과 함께 반드시 '준제관음보살의 진언'을 외우도록 하고 있다. 경전에서 '이 두 진언을 함께 외우면 공덕이 상승적으로 일어난다'고 설하고 있다.

준제진언에 의한 사종법(四種法)은 뜻하는 바를 이루어지도록 발원하는 증익법(增益法), 재난소멸을 발원하는 식재법(息災法),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경애법(敬愛法), 사되고 망령된 것을 물리치는 항복법(降伏法)이다.

사종법의 준제진언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재법, 증익법, 경애법의 준제진언은 다음과 같다.

1) 식재법의 준제진언

식재법의 준제진언은 '옴 자레 주레 ○○생 ○○○ 조상영식 왕생성불 사바하'와 '옴 자레 주레 준제 ○○생 ○○○ 제재난 사바하'이다. 이는 ○○생 ○○○의 조상이 극락왕생성불하기를 서원하고, ○○생 ○○○에게 일체의 재난이 일어나지 않고 멀어지기를 서원하는 진언이다. 앞의 것을 천도법(薦度法)이라 하고, 뒤의 것을 재난소멸법(災難消滅法)이라 하고 이 둘을 모두 식재진언(息災眞言)이라 한다. 식재진언을 외우는 서원의 예는 소송(訴訟), 관재(官災), 구설(口舌), 귀매소착병(鬼魅所着病), 일체질병(一切疾病), 영식전도(靈識遷度), 태풍(颱風), 수해(水害), 한해(寒害), 역병(疫病) 등 일체재난의 소멸을 서원할 때이다.

2) 증익법의 준제진언

증익법의 준제진언은 '옴 자레 주레 ○○생 ○○○ 소구역의 사바하'이다. 이는 ○○생 ○○○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서원하는 진언이다. 이를 증익진언(增益眞言)이라 한다. 증익진언을 외우는 서원의 예는 장수(長壽), 취직(就職), 승진(昇進), 영전(榮轉), 복덕총명(福德聰明), 권속세력(眷屬勢力), 생활경제향상(生活經濟向上), 사업발전(事業發展), 선약오통(仙藥五通), 입학시험 및 일체 고시합격, 임신 및 출산원만, 결혼, 진경(陳情) 허가(許可) 등의 성취를 서원할 때이다.

3) 경애법의 준제진언

경애법의 준제진언은 '옴 자레 주레 준제 영일체 인경에 ○○생 ○○○사바하'이다. 이는 ○○생 ○○○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기를 서원하는 진언이다. 이를 경애진언(敬愛眞言)이라 한다. 경애진언을 외우는 서원의 예는 설법변재(說法辯才), 언음청아(言音清雅), 일체인경애(一切人敬愛), 지우친근(知友親近), 원가와화순(怨家和順), 부부 및 가족의 화목, 동업 및 구성원의 화합, 직장상사와 동료의 친절과 화합, 각종 선거 당선, 결혼성취, 자녀의 학업 향상, 인허가 성취, 교화 발전, 입교(入教), 퇴전(退轉) 방지 등을 서원할 때이다.

이 세 가지 서원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일체 재난이 소멸하고, 일체 서원이 성취된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만 어린이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동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 02-445-2326

진실과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갑시다!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올해는 자 유와 변화, 그 리고 희망의 푸른 말,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역경을 두려워 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 가는 푸른 말 처럼, 국민 여러분과 사 대중들께서도 새해를 힘차게 열어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부 대중 여러분! 부처님은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화쟁과 중도의 가르침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원효스님과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만델라 등 인류의 지성들이 이 길을 이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온 몸으로 보여준 지혜와 자비의 울림은 우리들 가슴 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있음에도 경제불황과 양극화, 끊임 없는 분쟁과 자연재해 등 전 지구적인 고통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북 아 예 서 도 바다 영 토 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남북한은 정전 60년이 지나도록 평화체제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화해와 상생의 물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자본가와 노동자 등으로 편을 가르기라도 한 것처럼, 대립하고 갈등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과 화해의 기운이 절실합니다. 옛 말씀에 바보 셋이라도 서로 모여서 의논 하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했듯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종단의 주인인 사부대중이 서로 마음을 모아 지혜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햇빛과 이웃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불행한 이웃을 두고 내가 행복할 수 없으며,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 울음 속에도 빈틈이 있고, 상대방의 그름 속에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손을 잡으면 못 이룰 행복이 무엇이며, 못 이룰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도한 욕심과 잘못된 성념에서 벗어나, 진실의 눈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 스스로를 살피야 합니다.

(중략)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는 현란함과 숫자로 이룰 지어던 허명을 좇아 동분서주하기 보다는, 진실과 화해의 새 길을 여는데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읍시다.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천심인 민심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민심이 우리 사회의 공론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마당을 열어갑시다.

그 마당에서 진실과 화해의 물꼬를 내어, 국민 다수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갑시다. (하략)

최상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



도정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상략)
밝은 빛살 속으로 상서로운 군마(群馬)가 힘차게 달려오며 희망과 행복의 장엄한 서곡을 연주하는 듯 합니다. 일체중생이 밝은 기운을 받아 환희 공양을 베푸니, 삼라만상이 그대로 불보살의 구현입니다.

이 찬란한 새 아침, 우리는 올 한해를 살아가는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올 한해는 일체를 공경하는 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이 높아지고, 상대를 높이면 세상이 평화로워 집니다. 모든 갈등은 나를 높이는 데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나에 대한 집착으로 오는 것이니, 올 한해는 나를 낮추고 일체를 공경하는 지혜로 살아갑시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집멸도의 성스러운 진리로 법계의 근원을 파악 하셨으니, 그로부터 팔만사천의 법문과 삼조구만오십팔자의 장광설이 베풀어 졌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법문과 장광설도 결국은 나 한사람의 마음으로 부터 발현하고 귀착되는 것이니, 나를 다스리는 것이 우주 법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의 최상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니,

상불경 보살의 다함없는 수행이 그 표본이라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아집과 독선 그리고 편견의 파도가 한순간도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재해와 전쟁의 공포는 물론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국가 민족 간의 갈등이 들끓고 있으니, 어느 땅에 평화의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상불경 보살로 살아갑시다. 다툼이 없으면 평화롭고 차별이 없으면 평등합니다. 일체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천지의 조화가 드러나고,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상생의 복락이 펼쳐집니다.

갑오년 새해를 시작하며, 천지가 원융 하고 일체가 원만하여 정도의 문을 활짝 여는 대지혜가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산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옛 조사 스님의 말씀중에 만약 한 번이라도 빼 에 사무 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 으리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년 아침을 맞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다가올 아늑하고 따사로운 봄별이

더욱 많은 생명을 움트게 할 약속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품고 다가 온 새해에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덕화가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옛 것을 마무리 하고 새 것을 맞이하는 신년 벽두는 희망과 행복을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만의 행복, 나만의 희망만을 집착하고 욕심낸다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타인과 나누고자하는 자리이다 (自利利他)의 마음속에서만 세계일화(世界一花)의 한 송이 꽃이 만개 하고 국민행복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옆 자리의 사람을 경쟁과 대립의 상대가 아닌 함께 호흡하고 발맞추어 나갈 아름다운 동행의 동반자 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불국토로 화현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소외 되고 지친 이웃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자칫 낙오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요, 마음을 나누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불자(佛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집착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말지만 머무 름이 없는 베풀은 무한대의 공덕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회향(廻向)될 것입니다. 기소불욕(己所不欲) 물시어인(勿施於人)이라!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말처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남을 나와 같이 여기는 동체대비의 배려를 통해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상상과 화합으로 전환시키는 무한한 나눔을 온 누리에 채울 수 있습니다.

활달하고 푸른 기운을 갖춘 진취적인 청마의 해를 맞아 부강한 나라와 국민행복 시대를 염원하며 국민과 불자 모두가 근본의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멋진 한해의 주인이 되고, 복과 지혜 가득하길



희정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상략)
불자 여러분 올 한해, ‘긍정’이라는 희망으로 나의 모든 일을 받 아들이자신 을 키우는

수 행의 주인이 되어봅시다.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은 나와 인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자로서 좋고 나쁜 일을 분별하지 않고, 일체를 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여 새기는 일은 인과의 이치를 밝히는 지혜,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다가올 미래에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실천이 불자로서 지혜를 밝히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수행자의

참모습으로 드러내어야 할 것 입니다.

불자(진언행자) 여러분 지난 한해 모두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나 올해는 돌이 아닌 하나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과의 이치를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의 힘은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나의 그릇을 반듯하게 키우는 지혜와 복덕이 됩니다.

나아가 부정과 갈등을 극복하는 우리사회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행 또한 긍정의 힘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실천이 되어 이웃사회에 밝고 희망찬 웃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의 힘입니다. 웃음 넘치는 사회의 씨앗입니다.

불자(진언행자) 여러분 수행의 씨앗을 키워 나누는 힘차고 멋진 한해의 주인이 되고, 복과 지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서원합니다.

오유지족(吾唯知足)



이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새해가 밝아옵니다.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오유지족(吾唯知足)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즉 스스로 오직 만족할 줄 아는 새 해를 맞으십시오!

극락에 있어도 스스로 만족

하지 못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극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유지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양보하는 너그러운 마음

을 내어줍니다. 셋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아야 합니다.

이러한 참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면, 힘찬 말과 같이, 우렁찬 말발굽 소리같이 확! 트인 갑오년이 될 것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화사
주 교: 정사 법 상
전수 정 원
☎ 054-761-2466

개천사
주 교: 정사 우 인
전수 보 명 심
☎ 053-425-7910

국광사
주 교: 전수 혜 안 정
☎ 054-772-8776

단음사
주 교: 전수 지 현
정사 도 우
☎ 054-333-0526

선립사
기로스승: 보 원
심 지 장
☎ 054-261-0310

수계사
기로스승: 안 주 화
☎ 054-745-5207

수인사
주 교: 정사 안 성
전수 유 가 해
☎ 054-247-7613

승천사
기로스승: 원 봉
지 선 행
☎ 054-746-7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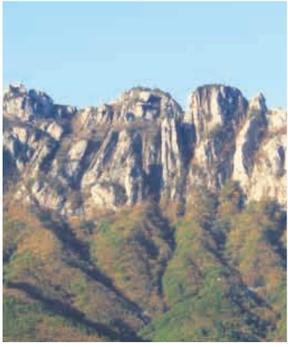
제석사
주 교: 전수 행 원 심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다시 **우리시조** 읽는

청산은 어찌하여

지은이: 퇴계 이황



▲ 설악산 '울산바위'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로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하리라**

**청산은 엿데하야 만고에 푸르며
유수는 엿데하야 주야에긋디 이나난고
우리도 그디마라 만고상청 호리라**

조선 중기 성리학의 거두 퇴계 이황이 지은 「도산십이곡」의 열한 번째 시입니다. 이황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유, 무정물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퇴계는 청산의 푸르름을 보고 무언가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푸른 기상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과 세계는 이미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푸름입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맑고 투명한 마음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퇴계의 노력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편집, 정리 = 편집위원회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龍泉 靑龍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리 520-2
시대 : 고려시대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의 청룡사에 모셔져 있는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24호)과 나란히 법당 안에 모셔져 있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로 크고 나지막한 상투 모양의 머리(육계)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4각형에 가까워 넓고 평범적인 느낌을 주며, 코와 입이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 독특한 인상을 준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옷은 넓적하고 평면적인 신체를 두껍게 감싸고 있다. 어깨에서부터 양 손에 걸쳐 흘러내린 평행의 옷주름은 부드러움은 하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가슴 부근에 있는 두 손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모습으로 비로자나불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손 모양이다.

4각형의 대좌(臺座)는 상·중·하대로 나뉘어 진다. 상대의 4면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지고, 중대에는 각 면에 큼직한 눈모양의 안상(眼象)이 새겨져 있다. 하대는 앞부분이 파손되어 있으며, 옆면에 안상이 2개씩 배치되어 있다.

8~9세기에 유행한 비로자나불좌상의 양식을 계승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움츠러들고 생동감이 없는 체구나 약화된 4각형의 대좌, 형식적인 옷주름 및 긴장감이 줄어든 신체 표현 등으로 볼 때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제 55와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플라.kr

부끄러움을 아는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어떤 수행자가 길을 걸다가 옷이 벗겨졌다. **어이쿠!**

어떤 사람이 길을 걸다가 옷이 벗겨졌다. **어? 시원하네.**

그것 참! 민망스럽기도 하지. **누가 본 건 아니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 좋으면 됐지. **새로운 패션! 똥꼬바지.**

이보쇼! 산 속에 누가 있다고 숨어서 옷을 입는 거요? **엄마! 깜짝이야. 산신령 아니쇼?**

이봐요! 보기 흉한데 옷 좀 올려 입어요. **얼레! 벌꿀이야. 안보면 될 것 아뇨.**

아무도 없다니요? 내가 나를 보았고, 해와달이 보았으며 산신도 나를 보았소. **헐!**

산신령이 내 바지 사는데 도와준 적 있소? **남에게 패해를 주고도 부끄러움이 없군.**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오.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오. **큭!**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내주겠다! 맹견으로 변신. **우와와! 울릴게요.**

내용참조: "불교총전 덕행편 제6절 참고 p471"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보사

주 교 : 정사 승원
전수 묘원화

☎ 042-255-7919

백월사

주 교 : 전수 환수원

☎ 042-527-5470

법황사

주 교 : 정사 도현
전수 자인행

☎ 062-676-0744

혜정사

주 교 : 전수 진일심

☎ 043-256-3813

흥국사

주 교 : 정사 지정

☎ 063-224-4358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 10종 선정

대상에는 ‘대승기신론강해’ (한자경 저, 불광출판사 간)이 수상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 1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12월10일 (화) 오후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지하2층)에서 개최하였다. 시상식

순서는 제1부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에 이어 2부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상식은 불교출판 의욕을 고취시키고 출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한 해 동안(’12. 10. 1 ~ ’13. 9. 30) 국내에서 조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올해는 48개 출판사에서 총 86종이 접수되었다. 심사는 본각스님(중앙승가대학 도서관장), 최종남(중앙승가대학 교수), 고영섭(동국대학교 교수), 여태동(불교신문 기자)이 했다.

선정종수는 총10권으로, “올해의 불서10” 가운데 대상 1종, 우수상 2종이 별도로 선정되며, 대상 및 우수상은 출판사와 저자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대상 상금은 1,000만원, 우수상은 400만원이며, 올해의 불서에 선정된 나머지 7종의 도서는 각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된 도서들은 일선사찰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심사위원들의 협의 아래 특별상 1종이 추가 선정 및 수상했다.

수상작 소개

대상: 대승기신론 강해 / 한자경 저 / 불광출판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와 「별기」 및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를 비교하면서 「대승기신론」을 주제적으로 소화해서 강해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의 깊은 이해력과 창의적인 해설, 다양한 도표, 명쾌한 문장 등이 돋보인다.

우수상 1: 담마빠다 / 김서리 역주 / 소명출판
불교의 최초 경전인 「법구경」, 즉 「담마빠다」를 원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획한 책으로, 빼알리어-한글 번역뿐만 아니라 빼알리어 문법 및 각주까지 덧붙이고 있어서 연구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 2: 생태사회와 녹색불교 / 유정길 / 인연
미래 불교의 사회적 실천은 녹색적이며 생태적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 책은, 불교의 연기 및 생명 중시 사상을 토대로, 미래사회의 진정한 행복은 녹색불교를 통하여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위빳사나 수행방법론 1, 2 / 마하시 사야도 저, 일창역 / 이슬
저자의 오랜 수행력과 교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위빳사나에 대한 이론, 실제, 수행방법, 그리고 그 내용들을 증명할 불전 원전 내용까지, 위빳사나와 관련된 제반 내용을 체계적이면서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별을 밝히는 아이 / 강미정 글, 엄수지 그림 /

참가어린이

동생을 갖기를 원하는 한 어린이를 통해,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의 정성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고 지키려는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바탕임을 느끼게 하는 동화책이다.

계을, 꽃과 가시 / 원영 / 담백북스
울장을 부처님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의 집적이라고 보는 저자는, 계을에 대한 올바른 독법을 통해 지켜야 할 것과 버릴 것, 그리고 현재 승가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병사와 풍경소리 / 함현준 지음 / 운주사 펴냄
현직 군법사인 저자가 병사들과 뒷골면서 겪은 잔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엮은 이 책은, 나약한 젊은이가 아니라 의연하고 강한 생각을 가진,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불심을 키워가는 군 불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 최성은 / 일조각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각 연구 일반도에서 벗어나 고려시대 불교조각을 다루고 있으며, 통일신라에서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로 넘어가는 불교조각들의 양식적 변천에 대해 분석 조명하고 있는 책이다.

십지경-오리지널 화엄경 / 전재성 역주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승불교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화엄경」의 요품인 「십지품」, 즉 「십지경」의 산스크리트본을 국내 최초로 역주한 책으로, 한역에 익숙해 있는 불자들에게 원전의 모습과 향기와 미각을 생생히 보여준다.

출생에서 죽음까지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 구미래 / 민족사

삶의 과정을 의례를 통해서 조명하려 한 점에서 인문학적 창의성이 돋보이는 이 책은, 종래 죽음 중심의 불교의례 연구에서 벗어나 출생의례, 혼례의례, 성인의례, 축수의례, 상례, 제례 등 일생의례 전모를 조명하고 있다.

특별상

실크로드 고전 여행기 전5권 / 김규현 역주 / 글로벌컨텐츠

평생을 실크로드와 티베트 불교 연구에 매진해온 역자가 그동안의 연구 및 현지 탐방 경험을 집대성하여 펴낸 책들로, 「대당서역기」, 「왕오천축국전」, 「불국기」, 「대당서역구법고승전」, 「송운행기」 등 1천여 년 전 불법을 배우기 위해 생사를 걸고 구법 행각에 나선 선각자들의 생생한 흔적과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오쇼 라즈니쉬, 칼릴 지브란, 크리슈나무르티, 이들은 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명상가들입니다. 특히 오쇼는 한국인 제자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요.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불교가 정신세계의 주류로 자리



불안증, 명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린포체의 세상을 보는 지혜>

잡았습니다. 티베트 불교 관련 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의 호응 또한 높습니다.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남방 불교도 있고, 한국의 선불교도 나름 경쟁력이 있는데, 이들을 제치고 티베트 불교가 주류를 선점한 것을 두고 달라이 라마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티베트 불교가 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들라고 하면 합리성과 효율성일 것입니다. 어떤 사상을 받아들일 때 그 사상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이런 기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티베트 불교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현대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스승들 중에서 달라이 라마를 이을 재목으로 추앙받고 있는 윤케이 밍규르 린포체가 쓴 「티베트 린포체의 세상을 보는 지혜」라는 책을 읽고 이 믿음은 확고해졌습니다.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다루지만 끈기를 잡는 식의 소리를 하지 않고, 이성적 언어를 사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뇌과학이나 심리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명상가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두루 갖춘 밍규르는 마음의 문제를 명상적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는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내 방에 머물며 이 책의 후반 부에서 설명하게 될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 명상을 했습니다. 서서히 나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나를 괴롭힌 생각과 감정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무력하고 덧없는 것인가를, 그리고 작은 문제에 붙잡혀 있음으로써 어떻게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사념과 감정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비논리적으로 왔다가 가는가를 관찰함으로써 나는 그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견고하거나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직접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버리자 그것들 너머에 있는 이야기의 ‘작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히 넓고 무한히 열린 순수 의식이 그것이었습니.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었습니다. p.34

린포체는 어렸을 때 꽤 오랫동안 공황장애 라는 극도의 불안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약물로도 고치기 어려운 이 병을 그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봄으로써 극복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과 비례해서 마음과 관련한 문제들이 현대인들을 괴롭힙니다. 우울증이니 불안증이니 하는 정신병들은 모두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티베트 불교는 이러한 마음의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불교 자체가 마음의 종교이기에 세삼스러운 것도 없지만 티베트 불교는 서양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심리학과 연계해서 불교적인 마음 치유에 관심을 보였고, 아마도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이지 싶습니다. 이런 티베트 불교의 흐름과 꼭 들어맞는 책이 「티베트 린포체의 세상을 보는 지혜」였습니다.

윤케이 밍규르 린포체 / 문학의 숲 / 16800원
김은주(자유기고가)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교구

지 회장 : 김 은 숙
수석부회장: 보 덕 제
 노 진 숙
총 무 : 이 인 성
재 무 : 양 재 범

부산경남교구

지 회장 : 신 인 록
총 무 : 정 남 선

대구경북교구

지 회장 : 한 영 란
총 무 : 임 연 옥

충청전라교구

지 회장 : 민 순 분
총 무 : 이 민 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불교총지종 삼밀사 외부(마당)
관세음보살 입상 조성 권선문



성도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관세음보살 입상을 불교총지종 삼밀사에 조성하여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과 원력을 구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불사의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불지 위에 올라 있으면서도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으로 손이 천이며 눈이 천이나 되시는 분으로서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을 보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나타나시어 중생의 형편을 살피시고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분으로 관자재보살님 이라고도 합니다. 고해 중생의 간절한 염원을 비추어 보시고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고 불안과 공포가 없는 마음을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불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관세음보살님 불사는 스스로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서원과 자신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장애, 난관을 극복하기를 기원하는 호신불 불사이기도 합니다. 이치인연 공덕으로 뜻하는 바 소원이 성취되고 지혜와 복덕이 구축하여지며 자손은 창성하고 가내가 평안하여 만복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 삼밀사 주 교 : 서령 정사, 혜원정 전수
- 삼밀사 신정회장 : 김화자
- 삼밀사 부회장 : 배숙자, 하명순 외 신정회 일동
- 후견인 기로스승 : 의강 종사, 원송 종사, 인법계 지수
- 문 의 전 화 : 삼밀사 051-416-9835

• 모연 계좌번호 국민은행 110-25-0005-939
(불교총지종 삼밀사)